



ORIGINAL ARTICLE

대학생의 노화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 부양의식

박 경 민¹ · 임 동 영²

¹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간호과학연구소

²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Regarding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Park, Kyung Min¹ · Lim, Dong Young²

¹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eimyung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²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University, Pocheon, South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supporting the aged awareness for research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80 nursing students in K university in G-do.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5 to April 15, 2016, and were analyzed by using mean, percentage,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 SPSS/WIN15.0 program. **Results:** The mean of the aging knowledge score was 12.50, the mean of aging attitudes score was 3.07 out of 5. and the mean of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score was 4.16 out of 5.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ging knowledge($r=.34$, $p<.001$).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ging attitudes ($r=.30$,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a need to develop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correct aging knowledge, encourage appropriate aging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Key words: Aging, Attitudes, Knowledge, Students, Aged

주요개념: 노화, 태도, 지식, 학생, 노인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Lim, Dong Young 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University
154 Sinpyeong-ro, Sinbuk-myeon, Pocheon-si, Gyeonggi-do 11138, Korea
Tel: 010-3901-8039 Fax: 053-425-1258 E-mail: dyylim117@naver.com

Received: July 21, 2016 Revised: October 19, 2016 Accepted: October 24, 2016

· 본 연구는 2016학년도 태산준령 비사 도약 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서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에 이르렀고[1], 노인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4년에서 2014년까지 각각 도시 거주 노인 67.9%에서 76.6%, 80세 이상 노인 16.2%에서 20.6%로 노인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가구 형태로는 독거노인 가구가 20.6%에서 23.0%로 증가하였다[2].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0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9년 대비 12.6%로 증가한 21조 522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는 6조 7614억 원(전년 대비 15.5% 증가)으로 전체의료비의 31.4%를 차지하여 노인의 의료비가 약 30%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 1인당 진료비도 전체 1인당 평균진료비 72만 8천 원의 3배에 달하는 2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있어(2010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 심사평가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부양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에 의한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 가족 내 부양의식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부양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이며,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 경제적 소득 보장문제, 사회복지문제, 보건의료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4]. 노인들이 기대하는 자녀들의 부모부양에서도 응답자의 55.5%가 ‘자녀라면 다소 무리해서라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한 반면 ‘자녀에게 여력이 있으면 노부모를 부양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도 21.9%에 해당하였다[5,6]. 이러한 노인 부양관련 내용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도 연계해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하는데 노인 간호학 이론과목이 일부분 이바지를 했으나, 태도의 현저한 변화를 위해서는 과목수강이외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7].

일부 간호사나 간호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 보다 비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 그리고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된 연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10]. 이는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11], 노인과 동거, 봉사활동 등 노인과의 직·간접 경험이 있는 경우 등이[12]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더불어 지식과 태도는 서로 무관함을 재확인한 연구도 시도되었고, 교육 시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강화하는 것이 요구[13]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할 때, 본 연구자는 노인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고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지식 향상과 태도 변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노인에 대한 태도와 신체적, 생리적 지식이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14]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함양과 긍정적인 태도 습득을 지원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도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교육과정 중의 부정적 영향일 수 있으며[15], 직업선택도 노인 간호 분야를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6]. 그러므로 노인 간호교육의 중요성과 효과를 보기 위하여 간호학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부양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학생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청·장년층을 형성하여 고령화 사회 핵심 구성원으로서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는 세대가 될 것이므로 이들의 노인 부양 의식, 노화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17].

노인에 대한 지식 향상에 효과성을 검증하고 노인 간호 봉사 활동 프로그램과 같은 간호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봉사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에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18].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가까운 장래에 노인을 부양할 책임을 지게 될 성인집단이므로, 노인에 대한 지각은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변화를 주기 위한 선도를 마련할 것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인식을 더욱 장려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19].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노인 부양의식의 쇠퇴가 노인부양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함으로써,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각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및 노인의 부양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초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부양의식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노화에 대한 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부양의식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노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도에 소재한 K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7에 따라 유의수준(α)=.05이고 효과크기(ES)=.20, 검정력($1-\beta$)=.80으로 하면 최소 표본 수가 156명으로 산출되었다. 최종 포함된 대상자 수는 180명으로 산정된 표본 수를 충족 하였다.

연구도구

노화에 대한 지식

노화란 가령(加齡)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간 유기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의 과정을 포함한다 [20]. 본 연구에서는 노화 지식 및 편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lmore [21]에 의해 개발된 True-False version의 Facts on Aging Quiz Part I (FAQ I)를 Han 등[2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체적 영역은 11개 문항(1, 2, 3, 4, 6, 8, 9, 10, 12, 14, 18번 문항), 심리

적 영역은 6개 문항(5, 11, 13, 16, 23, 24번 문항), 사회적 영역은 8개 문항(7, 15, 17, 19, 20, 21, 22, 25)으로 구성되어 있다. 짝수문항은 모두 정답이고 홀수 문항은 모두 오답으로 구성 하였다. 지식의 총점은 25점이며, 각 진술문에 대하여 맞다(1점), 틀리다(0점), 모르겠다(0점)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문항이 간단하고, 비교적 사실적 지식과 태도가 혼재되어 있지 않고 행동이라는 요소가 배제되어 최근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nders 등[22]의 척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Han [23]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개발한 20개의 상반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의미 분화척도인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제시된 20개 형용사 쌍 각각에 대하여 6, 70대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점에서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에 근거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배치는 응답자들의 의도적인 응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20개의 형용사 쌍들 중 긍정적인 형용사와 부정적인 형용사의 순서를 임의로 배치한 후, 자료 입력 단계에서 긍정적인 형용사일수록 높은 점수로 그리고 부정적인 형용사일수록 낮은 점수로 환산하여 재입력하였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의 분포는 가장 부정적일 경우 총점이 20점에서부터 가장 긍정적일 경우 100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태도 점수의 범위를 항목별로는 2.5점에서 3.5점까지로 그리고 총점으로는 50점에서 70점까지로 규정하였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 = .776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 .895로 나타났다.

노인부양의식

노인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노인 부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의식이다[24].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 부양의식의 측정은 Tuckman과 Lorge [25]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한 Park [18]의 노인 부양 의식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서비스, 경제적, 정서적 부양 의식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배점이 가능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 부양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3개 하위 영역 즉 경제적 영역 7 (1, 2, 3, 4, 5, 6, 7) 문항, 정서적 영역 6 (8, 9, 10, 11, 12, 13) 문항, 신체적 영역 7 (14, 15, 16, 17, 18, 19, 20) 문항으로 부양의식의 총

20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ark [17]의 연구에 노부모 부양의식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43$ 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경제적 부양의식 Cronbach's $\alpha=.889$, 정서적 부양의식 Cronbach's $\alpha=.849$, 신체적 부양의식 Cronbach's $\alpha=.900$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6$ 이었다.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 까지였다. 담당 교수의 양해를 사전에 구하고, 강의 중간 휴식 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철회 등의 내용을 설명 후 연구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설문지는 20% 이상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6명으로 산출되어 190부를 대상자에게 배부하여 부적절한 응답을 포함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180명의 자료로 최종 분석하였다. 대상자가 질문에 응답한 시간은 20~30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5.0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부양의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대상자의 노화에 대한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 및 연구의 제한점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본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의 위험과 보상, 연구의 익명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1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편의 표집 하였고, 연구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거나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

대상자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연령 분포는 20세 미만이 138명 76.7%였고, 성별 분포는 남자가 32명(17.8%), 여자가 148명(82.2%)이었다. 대상자 중 118명(60%)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기독교가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부모와 동거 경험 여부에서 과거에 살아 본 경험 있다가 96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동거하는 경우가 22명(12.2%)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만나는 횟수는 6개월에 1회 정도가 44명 24.4%로 가장 많았고 거의 없거나 한 달에 1~2회 정도가 18명 10.0%로 가장 적었다. 조부모와의 친밀도는 122명이 친밀하거나 아주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약간 친밀하지 않다가 12명 6.7%로 나타났다. 노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서 경험이 있다가 130명 72.2%로 높았고, 노인 관련 교육 여부에서는 94명 52.2%가 없다고 응답 하였다(Table 1).

노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가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평균이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총 20개 서술문 가운데 10개 항목은 평균보다 높게, 1개 항목은 중간으로 9개 항목은 평균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 된 항목에서는 '현명하다'가 평균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좋다' 3.49점, '신뢰할 수 있다' 3.48점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 된 항목에서는 '보수적이다'가 가장 높아 평균 2.36점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아프다' '비활동적이다' 2.60점, '불평이 많다' 2.63점의 순서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Table 2).

대상자의 노화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부양 의식 정도

대상자들을 상대로 노화에 대한 지식을 신체적 영역은 11개 문항, 심리적 영역은 6개 문항, 사회적 영역은 8개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25문항 중에 12.5점으로 50%의 평균 정답률을 보였다. 신체적 영역은 11점 만점에 7.3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영역은 6점 만점에 2.42점, 사회적 영역은 8점 만점에 2.75점으로 나타났다.

노화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7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노부모 총 부양의식은 3개 하위 영역 즉 경제적 영역 7문항, 정서적 영역 6문항, 신체적 영역 7문항으로 부양의식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만점에 평균 4.16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볼 때 대학생들은 경제적 부양의식 4.83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하였고, 신체적 부양의식 4.06점, 정서적 부양의식 3.60점의 순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80)

Variable	Categories	n (%)
Age (year)	>20	138(76.6)
	≥ 20- < 25	14(7.8)
	≥ 25- < 30	18(10.0)
	≥ 30	10(5.6)
Gender	Female	148(82.2)
	Male	32(17.8)
Religion	Christian	62(34.4)
	Buddhist	8(4.4)
	Catholic	36(20.0)
	No religion	72(40.0)
Living with the elderly	Other	2(1.1)
	Past	96(53.3)
	Now	22(12.2)
	Other	62(34.4)
Frequencies of meeting grandparents	Almost none	18(10.0)
	1 times in 6 months	44(24.4)
	1-2 times in 3 months	34(18.9)
	1-2 times a month	24(13.3)
Familiarity with grandparents	1-2 times a week	18(10.0)
	Every day	20(11.1)
	Other	22(12.2)
	Very familiar	12(6.7)
Senior volunteer experience	Familiar	44(24.4)
	Not familiar	70(38.9)
	Not at all,	52(28.9)
	Other	2(1.1)
Related subjects courses experience	Yes	130(72.2)
	No	50(27.8)
	Yes	86(47.8)
	No	94(52.2)

Table 2.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N=180)

Contents	Mean±SD
Wise-stupid	3.57±0.05
Kind-unkind	3.36±0.06
Knowledgeable-uneducated	3.42±0.05
Faithful-unfaithful	3.48±0.05
Tolerant-intolerant	3.29±0.06
Active-inactive	2.60±0.06
Clean-dirty	3.24±0.06
Favorable-unfavorable	3.42±0.06
Funny-boring	2.94±0.06
Healthy-unhealthy	2.60±0.06
Flexible-inflexible	2.90±0.07
Independent-dependent	2.91±0.07
Liberal-conservative	2.36±0.07
Attractive-unattractive	2.97±0.06
Generous-selfish	3.30±0.07
Satisfied-unsatisfied	3.07±0.06
Positive-negative	2.63±0.07
Good-bad	3.49±0.06
Productive-unproductive	2.83±0.05
Happy-unhappy	3.10±0.06
Total	3.07±0.0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 지식은 연령($F=2.266$, $p<.05$), 성별($F=2.515$, $p<.05$), 종교($F=1.956$, $p<.05$),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F=2.313$, $p<.05$),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F=2.701$, $p<.05$), 조부모와의 친밀도($F=1.946$, $p<.05$), 노인 관련 자원봉사경험($F=1.941$,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내

Table 3. Level of Knowledge and Attitudes of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for the Participants

(N=180)

Variables	Mean±SD or % (Rate of correct answer)
Knowledge of aging	12.50±2.67(50.0 %)
Physical	7.32±1.26
Psychological	2.42±1.29
Social	2.75±1.35
Attitudes of aging	3.07±0.03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12.55±2.29
Economic	4.83± 0.68
Emotional	3.60± 0.85
Physical service	4.06± 0.76

용을 살펴보면, 연령이 21세 이상 25세 미만인 경우, 남학생의 경우, 종교가 불교인 경우, 과거에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가 일주일에 1~2회인 경우,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매우 친밀한 경우, 노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노화 관련 지식 정도가 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연령($F=2.262$, $p<.001$), 성별($F=3.636$, $p<.001$), 종교($F=2.998$, $p<.001$),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F=2.256$, $p<.001$),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F=2.548$, $p<.001$), 조부모와의 친밀도($F=3.987$, $p<.001$), 노인 관련 자원봉사경험($F=4.046$, $p<.001$), 노인관련 교육 여부($F=5.90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이 21세 이상 25세 미만인 경우, 남학생의 경우,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현재 조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가 한 달에 1~2회인 경우,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매우 친밀한 경우, 노인관련 자원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개방적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부양 의식은 연령($F=2.371$, $p<.001$), 성별($F=2.149$, $p<.05$), 종교($F=2.476$, $p<.001$), 조부모

와의 동거 경험($F=2.256, p<.001$),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F=2.548, p<.001$), 조부모와의 친밀도($F=2.577, p<.001$), 노인 관련 자원봉사경험($F=2.234, p<.05$), 노인관련 교육 여부($F=4.43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여학생의 경우, 종교는 기타인 경우, 현재 조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가 한 달에 1~2회인 경우,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매우 친밀한 경우, 노인관련 자원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 부양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노화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 부양 의식의 관계

연구대상 대학생의 노화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 부양 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화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r=.34, p<.001$),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 부양 의식($r=.3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 부양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화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을 파악하고 이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대학 교육에서의 노화에 관한 정확한 지식의 획득,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노인 부양 의식 고취를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65.5%로 이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9,26]. 그러나 2016년 통계청 조사결과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이 68.4%로 [27] 조사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에 따른 대상자 연령별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의 노화 지식 점수는 12.50 ± 2.67 로 평균 정답률 50.0%이었다. 이는 Palmore의 FAQ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대학생 대상자의 평균 정답률 54%에 비하면 낮은 점수이고, 같은 도구를 사용한 Han 등[20]의 정답률 34.36%의 연구결과보다는 높은 것이다. 노화 지식 점수를 세부영역별로 보면 신체적 영역은 11점 만점에 7.3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영역은 8점 만점에 2.75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Kwon 등[19]과 Han 등[2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영역 점수가 가장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은 Palmore의 FAQ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노화 지식 정도는 연령이 21세 이상 25세 미만인 경우, 종교가 불교인 경우, 과거에 조부모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가 일주일에 1~2회인 경우,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매우 친밀한 경우, 노인 관련 자원 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노화 관련 지식 정도가 더 높았다. 이는 Kwon 등[26]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는 3, 4학년 때와 임상실습을 경험 한 군에서 지식이 높았고, 노인에 대한 고정 관념 및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는 천주교와 기독교 신앙을 가졌거나 노인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였다 의 연구 결과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육체적 힘과 관련된 문항에서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노화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고령화와 사회 변화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현황에 대해 대학생들이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 따른 사회적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평균이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 점수가 평균 2.71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14]. 본 연구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천주교 신앙을 가졌거나 노인 관련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과 전공 학생과 타 전공학생을 비교 연구한 Kwon 등[19]의 결과와도 유사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임상실습이나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된 봉사경험이 많아지면서 노인과 노화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생을 상대로 노년학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후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보다 수강한 후의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28]. 본 연구에서도 노인 관련 교육 여부에서 없는 경우가 52.2%였고, 노인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간호학과 학생은 노인과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고, 특히 임상 실습과 관련하여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접촉하면서 노인을 더욱 가깝게 인지하고, 그로인해 노인에 대한 고정 관념이나 부정

Table 4. Difference Knowledge and Attitudes of Aging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Characteristics		Knowledge of Aging			Attitudes of Aging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Mean±SD	F/t	p	Mean±SD	F/t	p	Mean±SD	F/t	p
Age (year)	>20	12.5±2.53			62.2±10.2			81.1±9.51		
	≥ 20- < 25	13.1±2.10	2.266	.005	62.4±8.05	2.262	<.001	76.5±5.31	2.371	<.001
	≥ 25- < 30	11.8±3.70			57.1±10.4			73.7±10.9		
	≥ 30	12.2±3.35			56.8±8.62			82.8±7.06		
Gender	Female	12.4±2.71	2.515	.011	60.4±9.24	3.363	<.001	80.4±9.59	2.149	<.001
	Male	12.9±2.50			66.2±12.7			78.9±9.44		
Religion	Christian	13.0±3.05	1.956	.031	61.6±7.63	2.998	<.001	81.6±8.93	2.476	<.001
	Buddhist	13.7±3.05			58.7±8.04			81.0±8.51		
	Catholic	11.6±2.02			62.9±15.8			81.3±9.38		
	No religion	12.3±2.46			61.6±8.72			78.1±10.22		
Cohabitation with the elderly	Other	10.0±0.00	2.313	.009	53.0±0.00	2.256	<.001	82.0±0.00	2.577	<.001
	Past	12.6±2.78			61.7±10.7			79.2±10.0		
	Now	11.7±3.20			65.0±11.1			83.1±8.92		
	Other	12.5±2.27			59.8±8.45			80.4±8.89		
Frequencies of meeting grandparents	Almost none	13.4±1.94	2.701	.002	56.6±9.60	2.548	<.001	79.5±7.70	3.404	<.001
	1 times in 6 months	12.4±2.80			58.8±8.06			79.3±10.1		
	1-2 times in 3 months	11.4±2.72			60.5±9.13			80.7±11.9		
	1-2 times a month	13.4±1.69			67.3±10.6			81.7±7.23		
	1-2 times a week	13.7±3.20			63.6±6.65			80.7±7.95		
	Every day	11.9±3.12			64.9±11.5			80.2±6.51		
	Other	12.0±2.13			60.8±13.0			79.1±12.0		
	Other	12.0±2.13			60.8±13.0			79.1±12.0		
Familiarity with grandparents	Very familiar	13.0±2.89	1.946	.032	55.3±7.69	3.987	<.001	81.5±4.73	2.847	<.001
	Familiar	12.0±2.61			59.6±10.8			76.1±12.6		
	Not familiar	12.1±2.78			61.2±7.87			81.0±8.33		
	Not at all,	13.3±2.37			65.3±11.4			82.3±8.05		
Senior volunteer experience	Other	10.0±0.00	1.941	.033	46.0±0.00	4.046	<.001	73.0±0.00	2.234	<.001
	Yes	12.3±2.64			62.2±9.09			80.7±9.44		
Related subjects courses experience	No	12.8±2.76	1.494	.131	59.4±12.3	5.905	<.001	78.2±9.81	4.437	<.001
	Yes	12.3±2.75			62.3±9.43			81.8±9.49		
Related subjects courses experience	No	12.5±2.62	1.494	.131	60.7±10.7	5.905	<.001	78.5±9.40	4.437	<.001
	Yes	12.3±2.75			62.3±9.43			81.8±9.49		

Table 5. Correlation among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N=180)

	Knowledge of Aging r (p)	Attitudes of Aging r (p)
Attitudes of Aging	.34(<.001)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07(.324)	.30(<.001)

적인 인식 보다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는 현재 해당 간호학과 학생의 노인 관련 교육 이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 부양의식은 평균 4.16점으로 이는 5점 만점에 평균 4.11점과 4.05점으로 나타난 타 연구결과[15,29]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 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볼 때 간호학과 학생들은 경제적 부양의식 4.83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 하였고, 신체적 부양의식 4.06점, 정서적 부양의식 3.60점의 순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양의식과 서비스 부양의식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정서적 부양의식은 낮게 나타난 연구[30]와 경제적 부양의식 3.78점, 신체적 부양의식 3.73점, 정서적 부양의식 3.53점의 순으로 나타난 Park [18]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 부양 의식은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여학생의 경우, 종교는 기타인 경우, 현재 조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가 한 달에 1-2회인 경우,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매우 친밀한 경우, 노인관련 자원 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 부양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 학년, 노화 및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등을 채택한 Park [18]의 연구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노인 관련 교육과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노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26] 여학생의 경우와 조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접촉적 유대관계가 높아 노인부양의식에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와도 유사 하였다[24]. 따라서 대학생들의 부양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조부모와의 친밀도 및 노인에 대한 관심을 증진 시킬 방안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 지식($r=.34, p<.001$), 노인 부양 의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r=.30,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 부양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지식과 부양의식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본 이유 중 하나로 연구 대상자가 특정 대학의 학생들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함을 들 수 있겠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부양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을 때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높아진다고 보고 한 타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18,29] 대상자의 노인 이미지는 지식($r=.14, p<.001$)과 유의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 인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26]. 반면에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지식과 태도는 서로 무관함을 재확인 한[14]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함양과 긍정적인 태도 습득을 지원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리라 본다.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책 마련이 계속 시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선도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듯 여겨진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우 더욱 장려 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학교를 비롯하여 기관에서도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을 향상하고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시 노인의 부양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 학생의 노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 도에 소재한 K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강의 중간 휴식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와 설문내용을 설명 후 설문을 하였으며 18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에서는 ‘현명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된 항목에서는 ‘보수적이다’가 가장 높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지각하였다. 대상자의 노화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 정도를 살펴 본 결과에서는 노화에 대한 지식은 평균 정답률을 보였고, 신체적 영역은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영역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노화 태도는 3.07점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특

성별로 천주교인 경우, 현재 조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조부모와 만나는 횟수, 조부모와의 친밀도, 노인 관련 교육 경험에 있는 경우 등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개방적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노부모 총 부양의식은 하위요인별로 살펴볼 때 대학생들은 경제적 부양의식 4.83점으로 가장 높게 지각 하였고 정서적 부양의식 3.60점의 순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노인부양의식은 특성별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현재 조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 조부모와의 친밀도, 노인 관련 자원봉사 경험에 있는 경우, 노인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등에서 높은 노인부양의식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화 지식,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화 지식 및 노인부양의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 부양 의식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점수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고, 노화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상관관계가 있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양의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게 노인관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 노인부양의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계열의 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부양의식을 조사하는 다양한 후속연구들을 제안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참고문헌

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5 Senior long term care insurance annals of statistics. [Internet]. [cited 2016 June 24]. Available from: <http://www.nhis.or.kr/bbs7/boards/B0039/19780>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Senior survey results announced. [Internet]. [cited 2016 March 31].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
3. Kim YK, Choe HG. The effects of family caregiving 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ith ADL disability. J Korean Gerontol Soc. 2001;21(2):99-112.
4. Choe YH, Chung S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hysical health assessment tool and health status of korean elderly. J Korean Adult Nurs. 1991;3(1):70-96.
5. Lee GO, Seo MK, Koh KH, Park JD. Senior living situation analysis and policy challenges. KIHASA. 94-171. 1994.
6. KIHASA. The re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and welfare needs of the nation 2004 survey. 2004.
7. Kim JH. Short-term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lecture course on attitudes toward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ean Gerontol Nurs. 2008;10(2):173-81.
8. Kwon MS, Noh GY, Jang GH. University students'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3;27(3):633-46.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3.633>
9. Um IS. Study on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 toward old people [master's thesis]. Daegu: Daegu University; 2009.
10. Cho EY. A study on aging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aged among doctors, nurses, and care workers [dissertation]. Seoul: Hanseo University; 2011.
11. Ragan AM, Bowen AM. Improving attitudes regarding elderly population: the effect of information and reinforcement for change. Gerontologist. 2001;41(4):511-5.
12. Kim SY, Yang KM, Oh HY, Kim JS.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2002;22(3):21-36.
13. Kim KB, Lim JB, Sok SR.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es toward elderly. East-West Nurs Res. 2007;13(1):13-21.
14. Lee MS, Yang SN. Nursing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 J Digital Converg. 2012;10(8):265-73.
<http://ocean.kisti.re.kr/IS>
15. Isabella M, Frederic M. Attitudes towards hospitalized older adults. J Adv Nurs. 2004;47(4):446-53.
<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4.03122>
16. Stevens J, Crouch M. Who cares about care in nursing education?. Int J Nurs Stud. 1995;32(3):233-42.
17. Chung KA, Jang HJ. Effects of elderly care voluntary program on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1;17(2):200-7.
18. Park MG. Relationship of womens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toward elderlies and conscious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Pusan Women's College J. 2009;31:263-77.
19. Kwon MS, Noh GY, Jang JH. University students's images, knowledge, and stereotypes plus perceptions about the elderly.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13;27(3):633-46.
20. Han JR, Ryu HS, Kim GJ.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about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Voca Edu Res. 2007;26(30):121-39.
21. Palmore EB. The facts of aging quiz. Gerontologist. 1977;17(4):315-20.
22. Sanders GF, Montgomery JE, Pittman JF, Balkwell C. Youth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 Appl Gerontol. 1984;3(1):59-70.
23. Han JR.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attitudes toward age groups. J Korean Gerontol Soc. 2004;24(3):159-72.
24. Ha KY, Hong DAG. Effect of grandchildren' solidarity with their grandparents on caring attitude for the elderly. J Korean Human Ecology. 2002;11(2):107-21.
25. Tuckman J, Lorge I. The influence of a course on the psychology of the adult on attitudes toward old people and older workers. J Gerontology. 1952;43:400-7.
<http://dx.doi.org/10.1037/h0062469>
26. Kwon SM, Kwon MS, Kwag OG.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Ind Coop Soc. 2015;16(2):1129-36.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29>
27. Statistics Korea. 2015 Gangwon social survey results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6 [cited 2016 January 19].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office/dbro/rodb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1116
28. Lee YS, Park KR. Effects of an undergraduate gerontology course of the students' attitudes about older adults. J Korean Gerontol Soc. 2002;21(3):9-41.
29. Yang YK.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3;19(4):498-507.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498>
30. Back JU, Kim MJ. A study on the undergraduates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J Korean Clin Soc Work. 2009;6(3):67-85.